

미 존재의 올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벰전2:9

지난 3년 동안 좌익 정부의 나라 흔들기, 정치, 경제, 국방, 안보, 교육, 도덕과 윤리, 기독교 이라는 가운데 중국발 코로나 역병 사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세상 애국 운동을 하며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는 동안 나도 성도들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로,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때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년 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말씀사 출간, 소개하고 200권정도 교회에서 소개하고 판매함, 중요한 토픽이라 설교하겠다고 함

이제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 기회가 될 때마다 파이퍼, 맥아더, 위어스비 등 소개

국내에서는 설교집으로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김남준 목사님 책들, 여러 권 소개 침례교 목사가 왜 장로교 목사 책 소개?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분들 왜 소개?

나는 이미 교리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 어떤 사람의 것이 들어와도 내 것과 맞지 않으면 버린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김남준 목사님처럼 잘 설명하신 분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그분의 책을 교과서로 삼고 이 주제를 여러 성도들에게 설명하려 한다.

대학에서 열전달 강의, A라는 교과서, 그런데 6장에 가면 B라는 교과서 저자가 더 잘 설명해 놓았다.

그러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장의 경우는 B 교과서, 9장은 C 교과서, 전체는 열전달 즉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부분만 추려서 제시한다. 학생은 최고의 교육 나도 마찬가지로, 성경 강해, 설교, 리더십, 성경 공부, 성경과 정치, 여러 분야에 다 전문가가 있다. 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제공하려 한다.

주의할 점: 그런 분들을 소개할 때 그분들의 모든 시학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주제의 그 부분만 택한다. 왜 그분들의 설명이 좋으니까?

책 소개

서문, 1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

2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빛 가운데 걸으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베드로전서 강해, 특별히 2장 9절 말씀, 가능하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토픽을 다 다루려 한다.

서문: 존재의 올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저자 서문, 읽기,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김남준 목사님의 글은 시 같다. 나는 공학도로서 논리는 있으나 정서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책을 택하여 나도 배우려고 한다.

들어가면서: 존재의 올림

‘존재의 올림’: 참 멋있는 말이다.

베드로전서 기록자: 베드로,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일반 서신

수신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벰전1:1)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베드로에게서 유래하였다(1:1).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며 베드로는 그의 성으로서 조그만 돌을 뜻한다(요1:42). 그는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며 겁이 많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양들을 맡은 이후(요21:15-18)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주제: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길, 목적: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

내용: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주후 54~68년). 로마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도처에 흩어져

불 같은 시험을 당했다. 그때에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녔고 이에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베드로는 먼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의 은혜를 말하고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은혜의 교리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다. 베드로의 삶과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베드로전서는 5장, 105절, 2,476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확신과 약속)

핵심 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1:6-7), 핵심 단어: 고난받다(15회)

핵심 구: ‘순례자와 나그네’,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어린양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귀중하시다(2:7).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나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세 번 부인

그래서 그는 교회가 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편지 기록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펍박 이야기만 다루지 않는다. 성도들의 일상생활, 실천적인 교훈

1장은 소망, 2장은 하나님의 백성, 3장은 남편과 아내, 4장 청지기로서의 신자의 인생, 5장은 교회와 목양

즉 베드로전서의 교훈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포괄적 교훈

이런 교훈의 토대 혹은 기초: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딤후1:1)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

살아 있는 돌

베드로전서 1장과 나머지 2-5장을 연결해 주는 중심 신학적 주제

산 돌 혹은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2:5)

살아 있는 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모퉁잇돌의 이해 필요

행4:11, 예수님은 모퉁잇돌 혹은 모퉁이

모퉁잇돌: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벽이 만나는 자리에 놓여 건물의 무게와 구조 전체를 떠받쳐 주는 역할 수행, 건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성경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모퉁잇돌로 볼 수 도 있다.

베드로 당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온 세상에, 로마의 중심까지 전파됨

교와 안의 상황: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고방식, 세계관, 인생관, 삶의 양식이 너무나 다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다투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잇돌,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생명 부여, 이 돌 연결

따라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구원, 그 뒤 그는 교회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성도들과 유기체 관계

구원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그분의 몸에 속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필요, 이것이 없이는 정상적인 성장 불가능

그래서 지역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복음

구원받는다. 좋은 것이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러면 끝인가? 아니다. 사명이 주어진다.

이미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롬6:16-18).
새로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한다(딤후1:2).

이런 소망을 가진 채 세상과 투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빌1:29).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인생관, 역사관의 변화

이 세대를 섬기다가 간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 사명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1. 구원 점검, 2. 복음에 대한 지식의 결핍, 3. 구원의 감격을 잃고 침체 상태: 이 경우 구원이 이루는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존재한다는 것

신자의 사명: 보편적 사명, 개별적 사명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개별적 사명이 있고 보편적 사명이 있다.

보편적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의도하신 존재가 되는 것

마가복음 3장 14절: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

1.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것 다음에 개개인의 사명이 있다.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어지럽고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하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잊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신 원초적 목적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 그 의도대로 살지 못하던 존재, 구원 이후 그분의 의도대로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

마5:13, 16 빛과 소금

그러므로 신자가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포이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의 울림'이라고 부른다.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울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즉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을 지은 목적: 훌륭하다.

존재의 울림: 이 시간과 공간에 없어도 가능하다.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과거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존재의 울림을 주고 있다(히11:4).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존재의 울림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의 울림: 베드로처럼, 아모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도 농부도

다니엘같이 조용한 성품의 사람, 엘리야같이 불 같은 성품, 공통점: 존재의 울림

존재의 울림은 학식, 재물, 가문(혈통) 등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됨의 문제이다(막6:20).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현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 말씀 선포, 목양, 교육, 선교, 봉사를 통해 존재의 울림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

가정과 교회의 존재 목적: 지체들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불신자들 구원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해서 다 울림을 내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 경우 불로 구원받은 사람(고전3:15).

이 땅에서의 성화 과정: 울림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색소폰 연습, 소리가 안 난다. 오래 연습해야 소리가 난다. 성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라고 한다. 판박이가 되는 것

울림의 소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음악, 공학, 재물, 뛰어난 사람

거기에 도달하려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울림을 준다.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으면 믿을수록 존재의 울림을 크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 이런 울림을 내는 사람

이런 울림을 낼 때 세상이 우리말을 듣는다.

지금 세상의 문제: 교회가 이런 울림을 내지 못한다.

나도 부끄럽다. 존재의 울림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정진하자.

이 책은 바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다.

일단 존재의 울림을 내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1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우렁찬 울림을 내야 한다. 2부

앞으로 이 책을 같이 공부함으로써 존재의 울림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